

‘전쟁 같은’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극단적이면서 합리적인*

육수현**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재까지 성공적이라 평할 수 있는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을 살펴봤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은 국경 봉쇄로 이야기되는데, 극단적이리만큼 강력한 대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대응과정을 짚어봤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전시상황과 견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한 봉쇄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고, 국민적 동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 분석했다. 메타포, 과학적 사실 공유, 애국을 위한 사회적 격리와 감시는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지점이었다. 둘째, 강력한 국경 봉쇄로 대변되는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이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참여한 갈등이 촉발되었던 사건인 베트남의 ‘대구발(發) 비행기 탑승객 격리조치’가 베트남 내 한국 및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확산시켰고,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베트남 현지 기업과 교민사회의 민간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봉쇄가 국민적 합의를 얻어냈고, 그것은 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니다(NRF-2019S1A2A 3099176).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breeze284@daum.net.

트남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향에 동조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리더십과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된 국가의 역량은 ‘감시’와 ‘통제’라는 권위주의적 성향의 아이디어로만 평가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어: 베트남 코로나19 대응, 전쟁 메타포, 베트남 정부의 역량, 권위주의적 성향의 통제, 한국과 베트남 관계

I. 연구목적

네이션지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주목을 받는 국가로 한국, 대만, 베트남을 꼽았다(The Nation 2020/4/24). 실제로 2020년 7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100일 만에 첫 지역감염자가 나오기 전까진 베트남에서 추가적인 지역감염자와 사망자가 없었고, 조심스럽게나마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2차 파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7월 25일 이후 8월 21일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525명까지 늘어나 베트남 내 총 확진자는 1,006명, 사망자는 25명이 되었다. 격리된 사람의 수는 100,569명이었다.¹⁾

베트남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고, 다낭발 2차 파동의 결과로서 급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후쿠야마(Fukuyama 2020)의 주장처럼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대응하는 관건은 경제 규모, 의료 수준, 민주주의 등의 조건만큼 국가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그리고 국가의 역량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의 사례는 의미가 있다.

1) 이 글에서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날짜는 모두 2020년에 해당한다.

베트남에서 2차 파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역감염자가 발생한 지 1달 만에 급격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적인 차원으로만 봐도 다른 나라의 수준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2차 파동의 여파가 최근에 진정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베트남 내 시민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95%가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The Japan Times 2020/08/10).

이 글에서는 첫째,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에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을 살펴본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은 국경 봉쇄로 이야기되는데, 극단적이리만큼 강력한 대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대응과정을 짚어본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시민 스스로 감시체계에 순응하며 정부와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었던 베트남의 역사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베트남 정부의 권위주의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기존과 달리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도 관심사 중 하나이다.

둘째, 강력한 국경 봉쇄로 대변되는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사례는 ‘대구발(發) 비행기 탑승객 격리조치’로,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한국과 갈등이 촉발되었던 사건이다. 누구보다 중요한 베트남의 경제파트너인 한국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뻔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베트남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는 봉쇄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단순한 코로나19 대응조치가 ‘대구발(發) 비행기 탑승객 격리조치’라는 한국-베트남 국가문제로 치닫게 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역할을 한 것이 한국언론의 보도이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내 한국 및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 증가하였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베트남 현지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 연구는 베트남의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차원의 봉쇄가 국민적 동의를 얻었으며, 이러한 동의가 베트남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향에 동조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는 코로나19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의 리더십과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된 결과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베트남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결과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검색 사이트인 RISS에서 ‘코로나19’로 검색한 결과 모두 520개의 연구논문이 검색되었다(7월 8일 검색 기준).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54건, 일본 21건, 미국 43건, 유럽 13건, 남미·아프리카 2건으로 나타났다. 다수인 나머지 연구는 한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제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국 내 사회안정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대다수는 국가(자국 또는 타국)의 대응 양상과 평가에 초점(강철 2020; 김수경 2020; 김희숙 외 5인 2020; 서상민 2020; 양상희 2020)이 맞춰져 있으며, 날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출입국 제한 및 법률적 조건, 보험 쟁점, 국제보건규칙, 관광객 감정,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 등(맹수석 2020; 윤경우 2020; 이재유 2020; 이창주 2020; 홍민정·오문향 2020)과 같은 새로운 질서와 수용 방법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는 1건이 검색되었는데, 이 연

구(김희숙 외 2020)가 2020년 5월에 게재되었음에도 500회가 넘게 조회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에 반해 2017년 신남방정책 이후 더욱 밀접해진 베트남과 관련된 한국에서의 연구는 검색되지 않았다. 베트남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²⁾ 관련 외신 보도는 적지 않았다. 코로나19에 의한 베트남의 사망자 “0”명, 새로운 지역감염을 막기 위한 통제 정책을 다루는 외신 보도가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20건 이상이 검색되었다. 베트남 언론의 보도는 주요 언론기관인 투오이찌(tuoi tre), 전찌(dan tri), 징(zing), 비엔익스프레스(vnexpress), 탕니엔(thanh nien) 등과 정부 사이트 또는 기타 언론기관에서 생산한 뉴스가 약 14,952건에 달했다.³⁾

이러한 언론 자료를 분석한 Viet-Phuong La 외(2020)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깊이 받는 베트남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소셜 미디어 및 과학 저널리즘에서 찾았다. 그들은 보건 시스템이 미흡하고 의료자원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정부와 언론과 시민이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상호 신뢰를 쌓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처럼, 베트남의 소통방식은 언론 보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Hong Kong Nguyen 외(2020) 역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형성된 공공의 준수(compliance) 태도가 베트남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개방적인 의사소통 속 정부의 대응이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보장하게 되면서 정부와 시민 간 효과적인 협

2)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을 간접적으로 다룬 한국에서의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초기대응의 함의를 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성공적인 초기대응 결과에 대한 원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교연구 한 김희숙 외(2020)의 연구가 유일하다. 언론 보도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면 더 많은 연구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연구논문에만 살펴볼 경우가 그러하다.

3) 2020년 1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검색에 해당한다(Viet-Phuong La 외 10인 2020:5).

력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같은 선행사례를 통해 빠르게 대응 방식을 습득하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Maurizio Trevisan 외 2020), 끊임없이 변화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지형에서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접촉, 격리, 방역 등 확산을 위한 범시민적 단계에서의 적절한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Ha-Linh Quach 외 2020).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개방적 의사소통은 긍정적인 면만을 가져 오지 않았다. 잘못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배포되면서 대중이 혼란에 빠지거나, 슈퍼전파자의 동선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등 일반 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Hoa Nguyen 외 2020: 446).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그로 인한 위협의 증가는 오히려 베트남 정부가 기존에 취했던 정보에 관한 비밀스러운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일당체제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방편으로 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정부 정보를 대중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Hoa Nguyen 외 2020: 446).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성공적인 대응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베트남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시사점을 다루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Bach Xuan Trana 외(2020)는 베트남에서 전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의 보건 전문가, 의대생, 지역사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질병 예방을 위한 장비, 인프라, 자금 등의 역량이 부족하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지역사회 적응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전염병 사태를 대비한 실행 계획과 대응 시나리오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한 전략 개발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Bach Xuan Tran 외(2020)는 중앙 시스템의 구축뿐만 아니라 베트남

남 내 산업 근로자들의 건강과 경제적 취약성을 분석하여 산업종사자들의 건강상태와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산업 현장이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 연구자들은 헬스장, 공장 근로자 등 종사자 개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취약점은 증상이 있어도 휴식을 꺼리게 되는 배경이 된다면서, 전염병 예방과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찾는 약국, 보건소 등에서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역량이 수반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Le Thanh Tung(2020)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공공연한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을 위하여 정부, 사회조직,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적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과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는 베트남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배경과 함께 봉쇄와 격리가 가져온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러한 탐구는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베트남의 사회적·경제적 취약분야를 밝혀내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찾는 등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같이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분석은 종합적이면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Ⅲ.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1. 국가 리더십의 실천: 극단적이지만 합리적인

2019년 12월 31일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중국 우한 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

하고, 2020년 1월 2일부터 주변국은 우한에서 입국하는 여객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하는 등 경계를 시작하였다. 1월 9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잠정적으로 판정되었고, 1월 11일에 최초 사망자가 발생했다.

1월 11일 이후 베트남 역시 국경과 공항 통제를 강화했고, 4일 후 베트남 관리들은 WHO와 질병통제센터(CDC) 관계자들을 만났다. 1월 17일 부득담(Vũ Đức Đàm) 부총리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국경(육로, 항공, 항구)의 의료 검역을 강화하는 등 부처 및 관련 기관에 과감하게 조치하라고 명령하였다.

WHO는 베트남의 빠른 위험 평가와 보호 지침을 발행하는 베트남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입증하듯이 베트남 정부는 부득담 부총리가 이끄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 1월 30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지도 위원회를 설립(위원장: Vu Duc Dam 부총리)하여 혹시 모를 사태를 준비하고, 1월 31일에 보건부는 45개 규모의 긴급 대응 기동팀을 구성하였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땃(Tet)을 기점으로 베트남에서 발병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예방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11개 시와 성의 관광객과 주민들을 더욱 세심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치가 강조된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하노이와 호찌민시, 다낭부터 중국과 국경을 맞댄 쩡닌(Quang Ninh), 랑선(Lang Son), 라오까이(Lao Cai), 카오방(Cao Bang), 하장(Ha Giang), 라이쩌우(Lai Chau) 등이다.

1월 30일 땃(Tet)을 맞이해 중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노동자가 베트남 북부 빈푹(Vinh Phuc)성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

데, 이들은 쩡닌(Quang Ninh) 국경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 보건부는 45개(보건부 소속 병원 25개, 군 병원 20개) 규모의 긴급 대응 기동팀을 가동하여 전국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라디오·TV·신문 등 국영 매체, 메신저앱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였다. 2월 1일 중국↔베트남 간 모든 항공편의 운항허가를 일시 중단(13시 기준)하였고, 중국 체류 또는 지난 2주 안에 중국에 체류했던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관광사증 발급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관광목적의 통행허가증 발급을 중단하면서 국경 출입국을 막았다. 2월 2일 국적을 불문하고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기록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을 2월 3일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을 항공사에게 통보하였다. 2월 4일 중국↔베트남 육로 교통인 기차 운행⁴⁾이 중단되면서 베트남과 중국을 잇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었다.

2월 3일 중국 우한으로 연수를 다녀온 빈푹성 소재 모 일본기업 직원이 추가로 확진되면서(2명은 1월 30일 확진)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약 100명의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격리된 채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 60여 개 대학은 예정되어 있던 2월 3일 등교를 1주일 동안 미뤘다. 2월 13일(베트남 누적 확진자 16명 중 빈푹성 거주자 11명)에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40km 거리에 있는 빈푹(Vinh Phuc)성 선로이(Son Loi)마을을 20일간 봉쇄 차단 조치하는 등 강경한 대책을 이어나갔다. 2월 25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16명 모두 완치되었고, 이후 12일 동안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려진 휴교령을 3월 8일까지 연장하였다. 호치민 인민위원회는 3월 15일까지 학교 문을 닫는다고 밝혔고, 대학생과 고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4) 중국→베트남 운행중단(2월 4일 18시 5분부터), 베트남→중국 운행중단(2월 5일 21시 20분부터)

3월 7일 또는 15일까지 휴교 기간을 연장하였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실제적 사실(확진자와 사망자 수, 방역 성공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이 없지 않았으나, 확진자가 더 나타나지 않는 소강상태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러던 중 3월 7일에 이탈리아 밀라노 구찌 패션쇼와 파리 세인트 로랑 이벤트에 참석했던 여성이 확진된 것으로 시작으로 3월 8일 1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이 시기 이후 외국발 입국자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3월 15일부터 영국과 유럽 쟁쟁 지역 26개국에서 오는 사람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또한 3월 15일 정오를 기점으로 30일간 중단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대규모 종교 축제에 다녀온 사람들의 정황을 확인하고, 호치민시에서 방문한 사원을 즉시 폐쇄하고 이들의 고향인 닌투언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다. 3월 21일에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그 후 국내 항공편과 열차가 대부분 취소되었다.⁵⁾

하지만 3월 이후부터 교포와 외국인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특히 영국 국적 비행기 조종사가 호치민 2군에 있는 유흥업소에 방문하면서 호치민 지역의 확진자를 증가시키는 등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사례가 확대되었다. 비슷한 시기 주변 아세안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5일간 이동금지(격리)조치를 내렸다. 이 시기 필요할 경우만 외출하고, 생활 거리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생활해야 했다. 응웬반테(Nguyen Van The) 교통부 장관은

5) 베트남 당국은 3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객기는 빈동 공항과 푸깃 공항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고시하였으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은 하노이공항과 호치민 공항 등 주요 공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국내 노선의 모든 항공편뿐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 버스, 열차 운행을 중지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생활과 관련된 마트, 은행, 약국, 병원은 문을 열었지만,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어려웠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동할 경우 30만 동(15,000원)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력한 봉쇄와 자발적인 격리가 시작되었다. 공장과 작업장 운영도 재택근무가 권유되거나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했다.

15일간의 극단적인 격리가 끝난 4월 23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12개의 고위험 지역을 제외한 51개 성을 중심으로 점점 정상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노이의 버스터미널 5곳이 약 한 달 만에 문을 열었다. 4월 29일 이후 정부에서 코로나 퇴치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국경(출입국금지)·지역폐쇄, 경제활동 및 이동 전면 중단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었다. 휴교 3개월 만인 5월 4일에 베트남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다. 2월 베트남 중앙은행은 0.5~1% 포인트 금리 인하 및 거래수수료를 폐지하고 민간은행들도 이자율 낮추기를 요청했다. 민간은행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총 124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지원계획을 내놓았다.⁶⁾

이러한 조치에 이어 베트남 총리는 지시문을 통하여 ‘Directive No.11/CT-TTg(이하 Directive 11)’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신용지원, 세금 감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 연기, 피해를 본 기업의 지방정부 수수료 및 부과금 감면,

6) 베트남 HDBank는 거래수수료 50% 인하, 대출이자율 인하, 의료기기·의약품 공급 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 ABBank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1억 7,2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0년 1분기, 2분기 중 생산용 원자재 가격 인상금지,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관리, 직업훈련 지원, 실업자 지원, 베트남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해결책 강구⁷⁾ 등이다.

4월 8일에 발표된 「시행령 41」에는 기업의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과 토지임차료 납부기한이 5개월 연장되는 등 약 7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세와 소득세 납부기한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4월 24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인 QD15/2020/QD-TTg⁸⁾도 발표되었고, 가장 취약한 베트남 빈민을 위한 25억 달러 지원 패키지도 발표되었다.⁹⁾ 주요 도시에 “Cây ATM gạo(쌀 ATM)”와 “Cửa hàng 0 đồng(zero dong store)”가 만들어지는 등 민간지원도 이어졌다. 8월 초부터는 “Cây ATM khẩu trang(마스크 ATM)”까지 생겨나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

7월 24일 이후 베트남에 새로운 지역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베트남에서 진정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2차 파동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4월 중순부터 지역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지역 소비와 여행을 독려했고, 여행할 인삼품이 활발히 소개되면서 베트남인의 자국 여행이 활발하던 때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7~8월에 다낭을 방문했던 약 10만 명의 하노이 시민이 검사를 받아야 했고, 다른 지역도

7) https://www.aseankorea.org/kor/New_Media/notice_view.asp?page=1&s_date=ALL&s_range=ALL&S_ALLTEXT=%EB%B2%A0%ED%8A%B8%EB%82%A8&BOA_UBUN=12&BOA_NUM=15450

8) <https://thuvienphapluat.vn/van-ban/lao-dong-tien-luong/Quy-dinh-15-2020-QD-TTg-ho-tro-nguoi-dan-gap-kho-khan-do-dich-COVID19-441047.aspx>

9) 베트남 정부는 No. 59/2015/QD-TTg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빈곤 가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소득과 기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s://m.thuvienphapluat.vn/van-ban/van-hoa-xa-hoi/Quy-dinh-59-2015-QD-TTg-chuan-ngheo-tiep-can-da-chieu-ap-dung-2016-2020-296044.aspx>

별다를 게 없었다. 정부는 바로 다낭을 봉쇄 조치하였고 추적조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시민들 역시 주변에 다낭을 다녀온 사람들을 신고하는 등 정부와 시민이 함께 2차 파동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까지 다낭은 외부인 출입에 제한이 있지만, 동네 재래시장 방문도 간헐적으로 허용되는 등 도시 내 이동은 일부 가능하게 되었다.

극단적이라고 평가되는 베트남 정부의 빠른 대처는 국가의 강한 공권력이 베트남 전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면서 베트남 언론과 외신이 베트남의 놀라운 통제력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의료 시스템, 약점이 많은 건강보험 및 환자복지에도 불구하고(Vuong 2015, 2018; Vuong 외 2018)¹⁰⁾ 베트남은 세계 최초로 SARS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에서 얻어진 전염병 초기 단계에 환자를 완전하게 격리하고 병원 감염을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를 봤다(Ohara 2004)고 평가된다. 또 베트남은 WHO와 2000년 초반부터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인수 공통감염증’에 대한 방역과 대응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경험이 있다. 이처럼 베트남의 방역 관련 국제협력 경험 역시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자원이 부족한 의료 시스템의 현실적 한계에 따른 신속한 통제와 감염병을 예방했던 과거의 경험 그리고 통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적극적인 경제지원정책이 코로나19에 대한 “극단적이지만 합리적인”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10) 베트남의 의료 인력 확보 수준은 아직 저조하지만, GDP(국민총생산) 대비 7.07%, 정부지출 대비 14.22%의 보건비 지출비율을 하는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전동연 이슈페이퍼 1 2020:17).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국가 리더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경제와 문화적 상황에서도 발휘되었다. 이러한 점은 IV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2. 권위적 대응에 대한 시민의 합의: 정보 소통과 전쟁 수사

중국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은 미디어 검열과 정보 통제 측면에서 중국보다는 더 개방적이라고 알려졌지만, 2019년 1월 사이버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중국과 같은 정보의 검열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병 초기 단계에서 중국의 질병 통계에 대한 의구심은 베트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었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베트남 정부나 시민사회가 깨닫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정보 은폐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과(The Diplomat 2020/03/17) 권위주의적 성향인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정보와 자원을 통제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베트남 정부는 1월 초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를 전국적으로 알려왔다. 베트남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몇 이후 베트남에도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WHO 및 기타 국제적 정보를 파악하고 공중보건 응급운영센터와 위생·역학 연구소의 경계태세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제안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호흡기질환 감염에 관한 사이트(TRANG TIN VỀ DỊCH BỆNH VIÊM ĐƯỜNG HÔ HẤP CẤP COVID-19)를 개설하여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정부와 방역 당국 중심으로 감염 및 의심환자의 국적, 이동 동선 등을 매일 공개하여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현재는 의료부로 권한이 이양되어 정보공개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베트남 정부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이전의 다른 정책과 달리 신속하면서 시민 친화적이었다. 보건부, 정보통신부,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휴대폰 문자나 Zalo와¹¹⁾ 같은 SNS 플랫폼을 이용해 전달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했다(Viet-Phuong La 외 2020).¹²⁾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chinhphu.vn)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뚜오이찌(Tuoi Tre), 탕니엔(Thanh Nien), 비엔익스프레스(Vnexpress), 썬 14(Kenh14) 등과 같은 다른 뉴스 매체에서도 1월 초부터 구체적인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었다. 이러한 정보 전달은 현재까지 매일 국민에게 확진자의 수, 새로운 확진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유지, 비누로 손 씻기 및 세정제로 물품 소독하기, 60대 이상은 이동 자제 요청, 영양과 운동을 통한 건강 개선 등 복합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정보를 페이스북에 있는 정부의 홈페이지¹³⁾에 공개하고, 보건부는 Zalo보건부(Zalo Bo Y te)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엔 블루존(Bluezone)¹⁴⁾이라는 앱을 통해 F1, F2 등과 같은 감염자 접촉자 확인 정보 전달 및 경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이면서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시민에게

11) 베트남의 SNS인 Zalo는 약 1억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추산할 정도로 베트남의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매체다(Zing news 2018/05/21).

12) 약 9,700만 명(2019)인 베트남 인구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6,400만 명이며, SNS 이용자는 약 5,800만 명(이계선 2020)으로 알려져 있는데, 60% 이상이 SNS(Facebook, Zalo 등) 활동을 하고 있다.

13) <https://www.facebook.com/thongtinchinphu/>

14) 블루존(<https://bluezone.gov.vn/>)은 정보통신부와 보건부가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로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활용되는 어플이다. 8월 초 베트남의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추적을 위해 블루존을 설치하기를 보건부, 성정부의 협조와 함께 독려했다. 블루존은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많은 만큼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luezone 2020/08/05).

기초적인 방역 정보를 전달하고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인 정보 전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유통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래 ‘겐꼬비(Ghen cô Vy, 코로나 싫어)’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이 노래는 미국 TV토크쇼에서 방송된 이후에 세계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3월 1일 미국 케이블채널 HBO ‘존 올리버(John Oliver) 쇼’에 소개된 노래 겐꼬비는 베트남 유명가수 민(Min)과 에릭(Eric)과 음악가 각흥(Khac Hung) 등이 참여해 코로나 예방수칙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다룬 경쾌한 노래이다. 이 노래에 맞춰 안무가 팡당(Quang Dang)이 기획한 ‘vũ điệu rửa tay(손 씻기 노래)’는 베트남 내 SNS에서 ‘챌린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얻었다.

<그림 1> 겐꼬비 노래 영상(좌)과 팡 당 안무가(우)



출처: 구글 캡처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이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였던 17번째 확진자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유럽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여과 없이 전달되었고, 가짜뉴스까지 SNS를 통해 진짜인 것처럼 전파되기도 하였다.¹⁵⁾

베트남 정부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보인 또 다른 특징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베트남의 과학계가 사실과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4월 3일, 베트남의 주요 대학교 중 하나인 국가경제대학(National Economic University)은 “COVID-19의 평가가 경제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Trường Đại học Kinh tế Quốc dân 2020/04/03). 또 다양한 과학자들이 개인 Facebook 계정에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질병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하여 커뮤니티에 알리는 등 대중에게 신뢰도 있는 지식이 계속해서 제공됨으로써 각종 루머와 음모 이론에 대응하도록 도움을 줬다(Science 2020/02/19). 하노이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교 (John Hopkins University) 부교수인 쩌쑤언박(Tran Xuan Bach)의 페이스북 게시물 조회 수가 13,000건 이상일 정도로 대중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¹⁶⁾

과학적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Military Medical Academy와 Viet A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가 공동으로 개발한 베트남의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는 단 1시간 안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WHO 및 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 표준 센터가 기준에 충족된다고 발표한 이후 20개국에서 이 키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Nhân Dân 2020/03/17). 이 외에도 3월 3일에 베트남과학기술아카데미는 공식적으로 SARS-CoV-2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성공적인 제조를 발표하였고, 이외에도 하노이 과학기술대학 등과 같은 기관이 보다 빨리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 개발된 진단키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베트남 시민은 과학적 자부심이 생겨났다. 이러

15)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1월 23일 이후부터 베트남은 가짜 뉴스를 확산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법령을 공식화 하였으며, 벌금은 베트남의 최저임금인 약 \$200을 상회하는 금액인 \$430-860 사이로 정해졌다(Tuoi Tre News 2020/02/05).

16) <https://www.facebook.com/bit84>

한 과학적 자부심과 더불어 정부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한 소통이 코로나19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이다.

활발한 정보 소통과 더불어 베트남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베트남 역사에서 형성된 국가를 위한 ‘전쟁 수사’ 또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국가를 위하는 마음과 국가를 위한 저항정신은 식민주의, 베트남 전쟁, SARS와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왔다. 통일성을 강조하는 사회 시스템에서 국민의 협동과 집단노력이 비롯되는 현상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식민지를 벗어나게 하고, 통일을 이뤄내고, 도이머이(Đổi mới/ 鬪鬮, 쇄신) 이후 누구보다 빠른 경제성

장을 가져온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받는 베트남의 민족적 결사가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힘을 발휘한 것이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모든 사업, 모든 시민, 모든 지역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요새가 되어야 한다”(Liberation 2020/04/06)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이라는 말을 강조하였는데, 이 말은 고난의 베트남 역사에서 늘 등장하던 수사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정부의 알림 문자에서도 “모든 시민은 전염병 예방 전선에 있는 군인(“Mỗi người dân là một chiến sỹ trên mặt trận phò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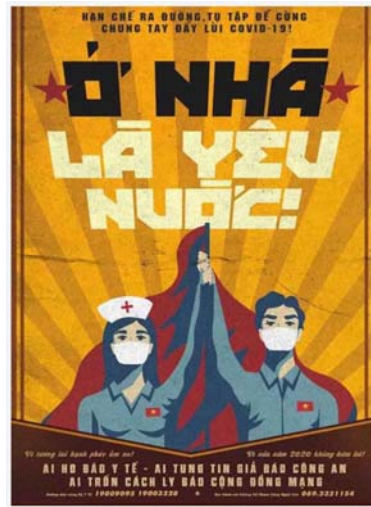


<그림 2> “모든 시민은 전염병 예방전선에 있는 군인”이라는 의미의 호찌민 의료부의 포스터

ng chống dịch bệnh)”이라는 문장을 사용하면서 베트남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주지 시킨다. 일방향적으로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과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느끼고 심각한 상황임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3>의 프로파간다는 베트남에서 등장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용적 목적을 지닌 예술적 결과물 중 하나인데, 예전부터 활용되어왔던 공산주의 정보부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선전 미학이기도

<그림 3> Le Duc Hiep, “집에 머무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출처: The Guardian 2020/04/09

하다. 이외에도 르우옌테(Luu Yen The) 작가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선전 포스터를 만들어 대중적으로 배포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의 선전 포스터는 국가의 재결합과 사회주의 구축에 초점을 두던 1970년대부터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형태이며, 현재는 베트남 젊은이와 관광객에게 하나의 예술적 상품으로 받아들여진다. 히엡(Hiep) 작가가 제작한 포스터(“집에 머무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역시 베트남인에게 친숙한 선전 스타일을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전쟁 시대의 정서와 애국심을 자극하였다. 게다가 상당수의 ‘선전미술’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작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17) 일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베트남인에게 마스크는 비교적 익숙한 물품이고,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을 때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있다. 이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베트남의 프로파간다는 베트남인에게 익숙한 선전방식으로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여유와 빠른 전달력이 특징이다. 코로나19를 ‘전쟁’과 비유하는 정부의 수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베트남 시민의 방역과 예방 의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프로파간다의 역할만큼 베트남 정부와 시민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감시의 문화도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경찰이 방문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 약 800명이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World Economic Forum 2020/03/30). 베트남에서 나타난 민간차원의 자발적 감시 체제는 자유와 개방성이 보장된 국가와 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의 최전선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감시’는 초기 조치와 지역사회 전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세밀한 ‘접촉 추적’과 관련되어 있다. 63개 성 정부에 CDC(질병통제센터), 700개 이상의 지구 수준의 CDC, 11,000개 이상의 공동보건소가 체계적으로 코로나19 접촉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접촉자와 동선은 공공연하게 공개되는데, 직접적인 범위를 포함해 상당히 넓은 수준까지 접촉 범위가 공개된다. 격리는 접촉 수준에 따라 베트남 정부시설인 보건소, 군사시설, 병원, 호텔, 자택에서 이뤄졌고, 5월 1일 기준으로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시설에, 14만 명이 자택이나 호텔에 격리되었다(CNN 2020/05/30).

베트남 정부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느리기는 하지만 정부 문서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PAPI(Provincial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erformance Index, 지방성 거버넌스와 공공행정 수

행지수)¹⁸⁾ 점수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투명성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보고와 관련하여 등장하였던 회의론을 완화하였다(Brookings 2020/05/20). 베트남 정부는 질병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Facebook에서 무제한 정보를 허용하였으며, 보건부가 관련 보고를 모두 게시하고, 온라인을 통한 블로그, 과학자, 공중보건 전문가의 정보를 공유시켰다. 과학 저널리즘에 기초한 정보 접근과 더불어, 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강한 공권력 이미지와 국가의 강력한 통제는 수많은 사람이 격리되고 일상이 제한되는 어려움에도 시민 스스로 국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은 국가를 위한 민족적 수사와 민간 감시체계를 건강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베트남 내 연구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및 공개는 앱, SNS, 포스터, 춤,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시민 친화적인 소통방식으로 코로나19를 잘 통제하면 할수록 시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불러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향한 공공연한 감시가 용인되어 오히려 국민의 합의 속에서 베트남 정부의 권위주의적 힘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를 재편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7월 발생한 2차 파동에서는 초기에 국가적으로 대응했었던 1차 확진자 발생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자체 정부 수준에서 대응하는 방식도 도입되었다. 지역감염자가 더 나타나지 않는 상황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2차 파동이 빠르게

18) PAPI는 성정부의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깨끗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로서, 행정개혁의 진전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김용균 2018: 117)

진정되었다는 점을 통해 대응법이 이미 규칙화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 샘플 역시 예민하고 헛갈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 정부 차원으로 검사하고 대처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예를 들어 하노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나 군의 학교, 유치원 등의 생활 인프라의 일시 휴교 등은 해당 구가 알아서 정하게 하는 등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자치구 또는 성 정부 차원에서 이동제한을 요청하는 등 자체적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베트남 정부의 태도와 역량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보다 민주주의의 질 혹은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로의 진전처럼(김비환 2012:34) 코로나19 대응에서 나타난 베트남 정부의 리더십은 일당적 권위주의가 확대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역량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극단적인 국경 봉쇄 상황 속에서 주요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물류를 계속 유통하고 있었다는 점과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적 마찰이 있을 때조차 경제교류를 우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응에서 베트남의 역량과 리더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IV.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화갈등과 해소

1. 코로나19 대응의 편협과 한-베 갈등

한국은 2월에 접어들면서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2월 23일과 24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으면서 상황이 견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

다. 2월 22일 기준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금지 조치, 입국절차 강화조치를 실행한 국가는 12개국이었다고, 그 수는 갈수록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이른바 ‘대구발(發) 비행기 탑승객 격리조치’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2월 24일 오후 1시쯤 대구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베트남 중부에 있는 다낭공항에 착륙하였다. 탑승객은 베트남인 58명, 태국인 2명, 한국인 20명이었다. 이 비행기 승객 중 한 승객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즉시 다낭시 폐전문병원에 격리되었고,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다른 사람들도 차량을 이용해 폐전문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한국 관광객 중 일부는 귀국하기를 원했고, 또 다른 일부는 호텔에 격리되기를 희망하거나 ‘다낭 관광 일정이 이틀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기하며 격리에 불응하였다고 전해진다. 다낭시는 호텔 격리를 위해 본래 섬이었던 지역인 선짜구(Quận Sơn Trà)구에 위치한 호텔을 섭외하였고, 숙박비용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같은 비행기를 탔던 베트남 사람 1명이 열이 난다는 소식을 들은 후 한국 관광객들은 다시 병원 격리구역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내부적인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후 5시 선짜구 호텔로 가기를 대사관 직원을 통해 전달하였고, 호텔이 이를 거절하였다. 오후 6시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관광객들을 하이찌우군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호텔의 숙박비 역시 다낭시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호텔이 바로 준비가 되지 못하면서 관광객들은 저녁 10시까지 임시로 병원에 머물렀는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전문시설이 있는 병원 격리를 설득하는 등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VNExpress 2020/02/24).

2월 25일 다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황득터(Huynh Duc Tho)는 24일 입국한 한국 관광객 20명을 귀국 조치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제안, 중부지방 항공국과 Vietjet Air 항공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된 사항이었다. 또 인민위원장은 관광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사과문은 다낭 관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및 위험성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조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불편함에 대한 사과와 이해요청을 담고 있었다(Kinhthé&Đôthi 2020/02/25). 2월 25일 저녁 비행기로 한국인 관광객은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의 공지와 다른 기사를 살펴봤을 때 베트남과 한국대사관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대구·경북지역에 물려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베트남 정부의 정확한 공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베트남과 한국의 기사에서 22일부터 입국 금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입국 금지에 대한 정확한 공문 발행은 대구발 비행기가 다낭에 도착한 24일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정부의 경우 영사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였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다고 한다(세계일보 2020/04/24). 다낭 인민위원장의 사과문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변수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듯싶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격리가 되었다”라거나 “자물쇠로 잠긴 열악한 환경에서 격리되었다”(YTN 2020/02/26)라는 식으로 보도된 한국 언론사의 기사가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다. 이 보도내용을 보면 자극적인 내용으로 베트남 당국의 조치가 설명되었고, 같이 있었던 다른 외국인들도 똑같은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은 빠진 채 한국인만

차별대우를 받은 것처럼 기사가 작성되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한국뉴스를 본 베트남인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베트남의 격리조치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수사들이 실제와는 다르며, 한국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베트남 국민도 군대나 병원 격리가 원칙이지만 호텔 격리를 고민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한국(인)이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였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그림 3> YTN 뉴스 영상과 베트남 해시태그 관련 이미지

<p>출처: YTN의 베트남 다낭 격리 관련 보도 화면</p>	<p>출처: 베트남에 사과해 해시태그(#)관련 게시물(한국일보 2020/02/26)</p>
<p>Xin Thông báo</p> <p>YTN đã đưa tin về sự việc người Hàn Quốc tại Đà Nẵng Việt Nam bị cách ly rời về nước vì những biện pháp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Covid 19 cũng như phòng vấn những người Hàn Quốc từng bị cách ly.</p> <p>YTN đã liên tục đưa những tin này vì sự trở về an toàn của công dân Hàn Quốc. Việt truyền đạt sự nghĩ của những cá nhân đã trực tiếp trải qua việc bị cách ly mà họ không nghĩ tới, cùng với nghĩa vụ của một cơ quan ngôn luận, chúng tôi nghĩ rằng phải truyền đạt toàn bộ nội dung phỏng vấn liên quan, không thêm không bớt.</p> <p>Chúng tôi lấy làm tiếc vì trong quá trình này đã phát sóng cả một phần thể hiện và sự bất mãn cảm tình trong những nội dung phỏng vấn về đồ ăn được cung cấp và tình hình cách ly.</p> <p>Chúng tôi chỉ định truyền đạt nguyên si lập trường của những cá nhân bị cách ly tại bệnh viện Việt Nam chứ không hề có ý định hạ thấp hay coi thường văn hóa đặc trưng của Việt Nam.</p> <p>Sau này, YTN sẽ trung thực trong vai trò truyền đạt tiếng nói tại hiện trường và bảo vệ an toàn cho công dân Hàn Quốc, nhưng đồng thời cũng sẽ thận trọng hơn trong cách truyền đạt để không gây hiểu lầm do khác biệt văn hóa trong quá trình truyền lại phát ngôn của người được phỏng vấn.</p> <p>YTN</p>	<p>알려드립니다</p> <p>YTN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한국인이 베트남 다낭에서 격리되었다 귀국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격리되었던 한국 국민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p> <p>YTN은 자국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본 취재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격리를 직접 경험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또한 언론사의 의무이기에, 해당 인터뷰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이 과정에서 격리 상황과 제공 음식에 대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 감정적인 발언과 표현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p> <p>이는 베트남 병원에 격리된 개인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러던 것일 뿐 베트남의 고유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추후 YTN은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인터뷰어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전달 방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p> <p>YTN</p>

*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된 YTN의 공식발표 내용(Kenh14 2020/03/04)

많은 베트남인은 아침으로 제공된 반미(Banh Mi)라는 역사적으로

도 의미가 있고 베트남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음식을 “땡 쪄가리”라고 표현하는 등 베트남 문화를 무시하고, 베트남 의료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내보낸 한국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해시태그(#)로 ApologizeToVietNam, KoreansStopLying을 개시하였다. 이 글은 이후 약 70만 건 넘게 트윗되면서 베트남 내 한국인과 한국을 질타하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한국일보 2020/02/26). 베트남 내 이러한 여론은 혐한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괜한 오해로 인해 현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에게 긴장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다(TBS 뉴스 2020/03/04).

이에 해당 언론사는 논란이 된 돌발영상 자막 오류와 ‘베트남 다낭 한국인 감금’과 같은 과장 보도를 내부 공론화 기구 공정방송위원회에 올려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등 취재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국인의 편향된 시각만을 전한 것에 대해 문제라고 인식하고, 3월 4일 유튜브 영상 댓글에 입장을 공지하였다(미디어오늘 2020/03/11). 이러한 공지문은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만들어졌으며, 베트남 언론에도 원문 그대로 소개되었다.

베트남 시민들은 극단적 통제와 민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권위적이지만, 국가를 위한 수사를 표출하면서 시민 스스로 정부의 극단적 통제에 합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인프라 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하였다. 그런데 ‘대구발(發) 비행기 탑승객 격리 조치’에 관한 한국 언론사의 보도는 ‘전쟁’ 메타포에 동조할 정도로 시민 스스로가 경계태세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문화를 폄훼하고 베트남의 의료상황

을 무시하는 것에 베트남인은 분개하였다. 이에 맞서 한국인 역시 한국인을 무시했다는 인식에서 이 사건을 민족적인 측면에서 대응하였다. 코로나19라는 의료적 대응에 문화적 요인이 작동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간 갈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2.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에 앞서는 경제적 대응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1990년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1990년대 주요 투자국은 중국이었다. 같은 시기 베트남도 조명받았지만, 중국만큼은 아니었다. 2010년 이후 아세안으로의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공적·사적 투자 대다수가 베트남으로 쏠리게 되었다. 2017년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베트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베트남에 삼성, LG, 포스코, CJ와 같은 대기업부터 제조업의 협력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 민족까지 모든 종류의 기업이 진출해 있거나, 준비 중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약 20만 명의 교민이 베트남에서 교육, 사업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도시 어디서든 한국 식당을 찾을 수 있고,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은 한국인 거리 또는 한국인 거주 지역이 있을 정도이다.

베트남이 코로나19 피해를 보기 시작하던 초기만 하더라도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과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농가를 지원하는 등 한인회,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진출기업·기관(삼성, 포스코, 한국전력, 두산, 대우 등)의 적극적 교류와 지원이 있었다(아시아투데이 2020/02/13). 국경이 통제되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 운송이 제한되는 까닭에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베트남과 한국, 일본을

오가는 직항 노선의 운항을 중단시켰다는 가짜뉴스가 떠돌았을 때 베트남 당국의 뉴스 유포자 색출 노력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등 두 나라 사이의 산업 교류 및 민간 교류의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2월 21일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외교부는 한국 체류 베트남 국민에게 한국 내 코로나 19 발생지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대구발 비행기가 다낭에 착륙하게 되면서 앞에서 살펴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외신과 베트남 내부 여론은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전쟁’의 수사를 사용할 정도로 베트남 정부는 이 사안을 중차대한 일로 다루었고, 시민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의 한계가 가져올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통제와 봉쇄 정책에 동의하고 온/오프라인 감시체계에 합의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초동대응 부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베트남인들도 스스로 통제와 감시를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이 격리되는 과정에서 병원 시설을 무시하고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폄훼하는 내용을 언론에 그대로 노출한 일은 베트남 내 여론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의료적 조치인 ‘대구발 비행기 탑승객 격리’ 행위가 양 국가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였고, 베트남 내 한국 교민과 한국기업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객의 에어비앤비 예약 취소, 그랩 차량 호출 무시 및 취소 등 일상적인 피해를 본 수준에서부터 온라인에서 퍼져나가는 험한 정서는 한국보다 베트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피부에 더 와 닿았다.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공외교의 영향이 무너질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의 영향은 국경을 닫고, 교류를 멈추게 하며, 떨어진 물리적 거리만큼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른 해결이 필요했다.

베트남과 한국의 항공이 중단되고 한국발 비행기의 승객은 모두 14일간 격리하겠다는 지침이 발표되면서 베트남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교민, 사업가, 기업 관계자들은 베트남 정부가 준비한 시설에 줄 줄이 격리되었다. 격리라는 당연한 의료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격리 시설에서 한국인들은 시설의 물리적 수준을 깎아내리면서 “한국인 집단 수용소”라고 하거나 “위험적이고 강압적이라는” 표현을 썼다.¹⁹⁾ 이러한 반응이 일파만파 커지자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와 코참은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박항서 감독과 함께 3월 6일 하노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군부대와 병원 등 격리시설 16곳에 있는 한국 교민과 베트남 국민 300명에게 의약품과 생필품 전달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싸고 불거진 베트남 내 혐한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온라인 캠페인도 벌어졌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있는 여행업체 ‘다마싸’는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협력 그리고 우호증진을 위해 SNS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베트남 한인연합회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지만, 베트남의 공권력 아래 살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한인을 보호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지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기도 하였다(아주경제 2020/04/09)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차례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3월 6일 삼성전자는 전량 구미에서 생산하던 갤럭시S20 시리즈 등을 베트남에서 만들어 국내

19) https://www.youtube.com/watch?v=O6cUPGmzBTg&feature=youtu.be&fbclid=IwAR1Uq9_d6oCIB-QrDWPEp6U09jd5jZwH1Qou_QP9Uyiu0iaWh_qgkrcG3QI

로 들여온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IT조선 2020/03/07). 하지만 2월 말부터 한국을 통해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14일 격리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글로벌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OLED 모듈 공장을 증설하려던 계획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기업의 활동 제약, 한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 등은 베트남 내 한인 경제에도 타격을 주었다. 직원도 줄이고, 인건비를 30% 수준으로 삭감했으나 작은 규모의 자영업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대형 여행업체는 석 달간 무급휴가를 도입하였다. 한인타운에서는 상가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은 교민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끝을 모르는 위기에서 국가 간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는 교민과 사업가 모두에게 반갑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 기업대표는 한국 언론사에 “대구·경북이어서 미안해”라는 글을 투고해 한국과는 다른 베트남 의료상황과 한국 뉴스전문 방송사의 자극적인 보도가 국가 간의 문제를 만들고 있으며, 그동안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영농자재신문 2020/03/11). 이처럼 베트남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인, 교민, 대중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노력하였고,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영상 및 방송을 자제해 줄 것을 한국 매체에 요청하였다.

3월 7일 베트남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 이후 베트남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은 잠잠해졌다. 내부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대중의 시선은 코로나19에 집중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관계 역시 3월 14일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이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무증상이며 감염되지 않았다는 보증하에 2주간의 격리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별도의 건물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다(VNExpress 2020/03/14).

삼성의 경우 4월 23일까지 총 7번의 입국이 허용되었다(Báo Quảng Ninh 2020/04/23). 3월 24일 LG도 전세기를 띄워 베트남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였다. 베트남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전한 4월 말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인 340명의 특별 입국이 허가(KBS World 2020/04/29)되는 등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은 누구보다 빠르고 특별했다.²⁰⁾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상의 결과였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우열 관계가 드러나게 되면서 발생한 갈등문제를 풀려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노력도 이어졌다. 신한은행, 대상, 아워홈, 풀무원, 한화생명, 오리온, K마켓과 같은 기업들이 기부와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커피기업인 쑹웬레전드그룹이 대구·경북 및 수도권 의료진에 베트남 국민커피인 G7 2만 잔을 기부하는 등 양국 간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7월 중순 베트남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아시아 6개 국가와 정기 운항편 재개를 협의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발표도 있었다. 7월 말경 중국·베트남·캄보디아와 같은 ‘저위험국가’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했던 한국인의 귀국 후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한국경제TV 2020/07/29) 등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예방을 기초로 경제교류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다. 7월 말 베트남 다낭에서 시작된 지역감염 2차 파동과 변화하는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질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교류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20) 대만의 경우 5월 19일 처음 158명의 기업인이 입국하였다. 베트남 북부 국제비행기의 착륙을 허가하는 번돈(Van Don)공항은 지난 3개월 동안 11편의 비행으로 한국 엔지니어와 전문가를 입국시켰다(Lao Động 2020/05/19).

이같이 경제교류를 적극적이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가운데 베트남과 한국은 각각 자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즉,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교류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베트남 내 ‘혐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삼성을 퇴출해야 한다는 소문을 언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베트남 관련 뉴스 기사엔 비판의 댓글이 가득하고, 유튜브에선 베트남의 행동을 ‘배신’으로 낙인찍는다. 여전히 사전 협의 없이 강제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빌어 잘잘못을 따진다. 그럼에도 베트남 하노이 특파원의 기사처럼 “베트남에 혐한은 없다.”(아시아투데이 2020/05/26) 코로나19로 무너진 양국 간 경제협력을 회복하려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노력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베트남 내 한국기업과 한인사회의 노력이 더해져 갈등이 점차 수그러들고 코로나19의 경제적 대응이 힘을 얻고 있다.

V. 맺음말

베트남은 2019년에 GDP 성장률이 6%를 기록했고, 2020년 경제전망도 희망쳤다. 미-중 무역갈등 영향으로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을 다수 유치했고, 애플, 구글, 아마존도 베트남 진출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코로나19의 습격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회를 맞이한 베트남을 시험에 들게 하였다. 경제전망 청사진과는 달리, 20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8%로 코로나19의 경제위기가 가시화되었다(The World Bank 2020/07). 코로나19에 맞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베트남은 국경을 닫고 교류를 멈췄다. 사람, 물건, 자본의 이동이 사라지면서 실업과 경기 불황이 나타났고, 위기가 깊어질수록 여파도 커졌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민간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2%에서 3.4%로 둔화하였다. 2020년 상반기 동안 거의 모든 세금 수입이 감소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국민을 위한 비용은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 실업률이 33%나 올랐고, 폐업 건수도 1월과 6월 사이에 거의 3만 명에 달하였으며(특히 서비스와 산업 부분에서), 이는 1년 전에 기록된 것보다 1/3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잠재적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였고, World Bank의 모바일 가구 조사에 따르면 6월 중순까지 약 650만 가구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The World Bank 2020/07).

2차 파동이 일기 전에는 베트남 경제의 상대적 회복력이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The World Bank의 2020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중순에 상품 수출액은 월평균 13%가 증가하였고, 제조 생산에서도 4월과 6월 사이에 30% 증가했다. 의료 시스템의 자원 부족 속에서 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베트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과 회복을 위해 문화적 차이에 의해 갈등상황까지 벌어졌던 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류하려는 노력도 병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베트남과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계적 팬데믹 위기는 국가별 정부의 능력을 드러냈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멈추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의료 시스템, 위생·보건 의식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침을 이행하면서 국민적 공동의식이 형성되는 데는 국가의 역량이 더 중요했다(Fukuyama 2020).

베트남이라는 국가적 역량은 코로나19 대응 상황 속에서 리더십

을 발휘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정부가 보여주는 행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로 보였고, 베트남 사람은 국가의 정책을 따랐다. 정부의 대응은 생명의 통계적 가치로 정당화될 수 있다. 실제로 2차 파동이 시작되기 전까지인 7월 말까지 베트남 내 코로나19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망자도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신뢰는 2차 파동이 시작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2차 파동이 시작되면서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을 호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는 증가하였다. 2차 파동이 있기 전에 내수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여행을 장려하고 이동을 권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생겨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지만 2차 파동이 시작되고 거의 한달 쯤 되는 시기에도 베트남 국민은 여전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신뢰하고 있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은 후쿠야마(Fukuyama)가 꼽았던 역량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적이면서 권위주의적 아이디어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전시조치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역량과 시민사회의 호응을 위한 수사로서 ‘전쟁 같은’을 활용한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논리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경제에 반하는 일도 아니다. 즉, 베트남 정부 리더십에 바탕을 둔 의지와 한국의 민·관 연대의 역할이 발휘되어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적 교류를 이어나가려 노력이 이를 반증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를 유지하려면 국민의 건강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건강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봉쇄하고 통제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통제를 완화한 나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차원의 대응체계만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베트남 내부에서도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베트남 국민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과 관련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가적 대응체계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많이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아쉬움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과 관련한 후속연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 202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메시지는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가? ‘격리 중 자기돌봄’과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哲學』 143: 87-109.
- 김비환. 2014.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들: 가치, 절차, 목적, 관계 그리고 능력.” 『비교민주주의 연구』 10(1): 33-63.
- 김수경. 2020.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 (1): 22-43.
- 김용균. 2018. “사성사색(四省四色)의 베트남 지방성(省) 거버넌스” 『동남아시아연구』 28(4): 115-159.
- 김제완 · 신송이 · 최예린. 2020. “코로나19 특별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호 : 캐나다의 퇴거 집행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3(1): 45-86.
- 김준배. 2020. “코로나19로 삼성 갤럭시S20 구미 생산분 일부 베트남서 만든다.” 『IT조선』 3월 7일.
- 김태언. 2020. “[김태언의 베트남 인(人)]윤상호 베트남 한인연합회 회장.” 『아주경제』 4월 9일.
- 김태훈. 2020. “한국 항의에 베트남 ‘감염병 대응 위한 불가피한 조치.’” 『세계일보』 2월 24일.
- 김희숙 · 유민지 · 김다혜 · 김현경 · 양영란 · 전제성. 2020. “코로나19에 맞선 동남아의 대응: 초기 대처과정의 잠정적 합의.” 전동연 이슈페이퍼 No. 1.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김희숙 · 유민지 · 김다혜 · 김현경 · 양영란 · 전제성. 2020. “코로나19에 맞선 동남아의 대응: 초기 대처과정의 잠정적 합의.” 『아시아 연구』 23(2): 75-116.
- 맹수석. 2020.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

- 적 쟁점의 검토.” 『金融法研究』 17(1): 155-190.
- 민영규. 2020. “‘자가격리로 알았는데’ 베트남 입국 한국민들, 이틀째 강제격리(종합).” 『연합뉴스』 2월 29일.
- 박진아. 2020. “코로나19와 국제보건규칙의 대응: 그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7(1): 1-28.
- 서경교. 2016. “동남아시아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국제지역연구』 20(1): 145-171.
- 서상민. 2020. “중국공산당의 위기관리 정치: ‘코로나19’ 대응의 정치적 논리.” 『중국지식네트워크』 81-137.
- 손가영. 2020. “YTN 공정방송위, ‘베트남 교민 감금’ 보도 ‘신중했어야.’” 『미디어오늘』 3월 11일.
- 손지명. 2020. “[베트남에서 온 편지] ‘대구·경북이어서 미안해.’” 『영농자재신문』 3월 11일.
- 안유학. 2020. “‘베트남 다낭 긴급 격리’ 한국인들 이틀 만에 귀국.” 『YTN』 2월 26일.
- 양상희. 2020.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처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 『국제보건규칙』(2005)과 메르스 사태 분석을 비교하여.” 『인문사회 21』 11(2): 1613-1626.
- 엄주희. 2020.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국가법연구』 16(2): 1-23.
- 오영달. 2010. “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의 모색: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7(2): 153-178.
- 윤경우. 2020. “코로나19로 촉진된 글로벌 대변혁과 중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중국지식네트워크』 5-79.
- 이계선. 2020.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 베트남 한류 심층분석”. 『한류나우』 Vol. 3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이유지. 2020. “‘반미’ 대접했는데 빵쪼가리?” 격리 한국인에게 빨난

- 베트남.” 『한국일보』 2월 26일.
- 이재유. 2020. “코로나 19 대응 관련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 및 국제법적 평가.” 『서울국제법연구』 27(1): 65-101.
- 이종실. 2020. “[여기는 베트남] 왜 베트남인들은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를 응원했을까?” 『서울신문』 6월 10일.
- 이창주. 2020. “코로나-19 국면 하의 중국 일대일로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139-181.
- 정리나. 2020. “베트남 진출 韓기업, 코로나19 피해 베트남 농가 지원 나선다.” 『아시아투데이』 2월 13일.
- 정리나. 2020. “[기자의눈] 베트남에 혐한은 없다.” 『아시아투데이』 5월 26일.
- 최양지. 2020. “베트남에 감금된 한국인 여행객? ‘코로나19에 따른 정상적 격리 조치.’” 『TBS뉴스』 3월 4일.
- 황인덕.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회계정보 품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18(2): 103-116.
- 홍민정 · 오문향. 2020.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내 잠재 관광객의 감정 반응 연구: 의미론적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관광연』 3(3): 47-65.
- Anh Minh - Anh Tú. 2020. “700 kỹ sư Samsung sang Việt Nam sẽ làm việc ở khu riêng biệt.” VNExpress. 3월 14일.
- Bach Xuan Tran and Hien Thi Nguyen and Hai Quang Pham and Huong Thi Le and Giang Thu Vu and Carl A. Latkin and Cyrus S.H. Ho and Roger C.M. Ho. 2020. “Capacity of Local Authority and Community on Epidemic Response in Vietnam: Implication for COVID-19 Preparedness.” Safety Science 130.

- Bach Xuan Tran and Giang Thu Vu and Carl A. Latkin and Hai Quang Pham and Hai Thanh Phan and Huong Thi Le and Roger C.M. Ho. 2020. “Characterize Health and Economic Vulnerabilities of Workers to Control the Emergence of COVID-19 in an Industrial Zone in Vietnam.” *Safety Science* 129.
- Black, George. 2020. “Vietnam May Have the Most Effective Response to Covid-19.” *The Nation*. 4월 24일.
- Bluezone. 2020. “Thủ tướng đề nghị toàn dân cài đặt Bluezone để truy vết nhanh.” *Bluezone* 8월 5일.
- Cohen, Jon. 2020. “Scientists ‘Strongly Condemn’ Rumors and Conspiracy Theories about Origin of Coronavirus Outbreak.” *Science*. 2월 19일.
- Đỗ Phương. 2020. “Đón chuyến bay thứ 7 chở các chuyên gia Hàn Quốc sang Việt Nam.” *Báo Quảng Ninh*. 4월 23일.
- Fleming, Sean. 2020. “Viet Nam Shows How You Can Contain COVID-19 with Limited Resources.” *World Economic Forum* 3월 30일.
- Fukuyama, Francis. 2020. “The Pandemic and Political Order: It Takes a State.” 『*Foreign Affairs*』 7/8월.
- Gan Nectar. 2020. “How Vietnam Managed to Keep Its Coronavirus Death Toll at Zero.” *CNN*. 5월 30일.
- Ha-Linh Quach and Ngoc-Anh Hoang. 2020. “COVID-19 in Vietnam: A Lesson of Pre-preparation.” *Journal of Clinical Virology* 127.
- Hoa Nguyen and An Nguyen. 2020. “Covid-19 Misinformation and

- the Social (Media) Amplification of Risk: A Vietnamese Perspective.” (26 June 2020) *Media and Communication* 8(2): 444 - 447.
- Hong Kong Nguyen and Tung Manh Ho. 2020. “Vietnam’s COVID-19 Strategy: Mobilizing Public Compliance Via Accurate and Credible Communications.” *ISEAS ISSUE* No. 69.
- Jones, Anna. 2020. “Coronavirus: How ‘Overreaction’ Made Vietnam a Virus Success.” *BBC News*. 5월 15일.
- KBS World. 2020. “340 nhân viên 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Hàn Quốc được cấp phép nhập cảnh đặc biệt vào Việt Nam.” 4월 29일.
- La, Viet-Phuong and Thanh-Hang Pham and Manh-Toan Ho and Minh-Hoang Nguyen and Khanh-Linh P. Nguyen and Thu-Trang Vuong and Hong-Kong T. Nguyen and Trung Tran and Quy Khuc, and Manh-Tung Ho and Quan-Hoang Vuong. 2020. “Policy Response, Social Media and Science Journalism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Health System Amid the COVID-19 Outbreak: The Vietnam Lessons.” *Sustainability* 12(7).(<https://doi.org/10.3390/su12072931>)
- Le Thanh Tung. 2020. “Social Responses for Older People in COVID-19 Pandemic: Experience from Vietnam.”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 Maurizio Trevisan and Linh Cu Le and Anh Vu Le. 2020. “The COVID-19 Pandemic: A View From.” *AJPH COVID-19 Section* 110(8): 1123 - 1172.
- Nguyễn Đông. 2020. “Nhóm khách Hàn Quốc không muốn vào khu

- cách ly.” VNExpress. 2월 24일.
- NGUYỄN HÙNG. 2020. “158 chuyên gia Đài Loan đầu tiên nhập cảnh vào Việt Nam qua Vân Đồn.” Lao Động 5월 19일.
- Ohara, H. 2004. “Experience and review of SARS control in Vietnam and China.” *Trop. Med. Health* 32: 235 - 240.
- Thế Anh. 2018. “Zalo cán mốc 100 triệu người dùng.” Zing nws. 5월 21일.
- The Guardian. 2020. “‘In a war, we draw’: Vietnam’s Artists Join Fight gainst Covid-19.” The Guardian 4월 9일.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09/in-a-war-we-draw-vietnams-artists-join-fight-against-covid-19>)
- The World Bank. 2020. “What Will be the New Normal for Vietnam?: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7월.
- Thứ Ba. 2020. “20 nước đặt mua kit phát hiện Covid-19 của Việt Nam.” Nhân Dân. 3월 17일.
- Tina Ngo. 2020. “Why has No One in Vietnam Died from Coronavirus?” Liberation. 4월 6일.
- Trang Nguyen and Edmund Malesky. 2020. “Reopening Vietnam: How the Country’s Improving Governance Helped it Weather the COVID-19 Pandemic.” Brookings. 5월 20일.
- Trien Vinh Le and Huy Quynh Nguyen. 2020. “How Vietnam Learned From China’s Coronavirus Mistakes.” The Diplomat. 3월 17일.
- Trường Đại học Kinh tế Quốc dân. 2020. “Trường Đại học Kinh tế Quốc dân công bố báo cáo Đánh giá tác động của Covid-19 đến nền Kinh tế và các khuyến nghị chính sách.” 4월 3일. (<https://neu.edu.vn/vi/ban-tin-neu/truong-dai-hoc-kinh-te-quo>)

-dan-cong-bo-bao-cao-danh-gia-tac-dong-cua-covid-19-den-ne
n-kinh-te-va-cac-khuyen-nghi-chinh-sach-2116)

- QUANG HẢI. 2020. “Đưa du khách Hàn Quốc về nước, Chủ tịch Đà Nẵng viết thư bày tỏ về sự đáng tiếc.” *Kinh tế & Đô thị*. 2월 25일.
- Vuong, Q.-H. 2018. “The (ir)rational Consideration of the Cost of Science in Transition Economies.” *Nat. Hum. Behav* 2(5).
- Vuong, Q.H. 2015. “Be Rich or Don’t be Sick: Estimating Vietnamese Patients’ Risk of Falling into Destitution.” *Springer Plus* 4(529).
- Vuong, Q.-H. and Ho, T.-M. and Nguyen, H.-K. and Vuong, T.-T. 2018. “Healthcare Consumers’ Sensitivity to Costs: A Reflection on Behavioural Economics from an Emerging Market.” *Palgrave Commun* 4(70).
- Yoichi Funabashi. 2020. “‘China Literacy’: Vietnam’s Key to Combating COVID-19.” *Japantimes* 8월 10일.

(2020.07.26. 투고, 2020.07.31. 심사, 2020.08.19. 게재확정)

<Abstract>

Vietnam’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such as War’: Extreme but Sensible

YOUK Suhyun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 in SNU)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at actions Vietnam initiated to prepare for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eason why they chose to do it, which seems to be considered successful action at the current level. Firstly, the author examines how Vietnam’s reaction could have been successful and analyzes a variety of features of their Covid-19 response process. At the early stage of this mysterious new pneumonia, Vietnam decided to act quickly in the ways which seems to be quite extreme at that time. With regard to Vietnam government’s action, the author illustrates the detailed process of their response and identifies how they quickly initiated such drastic action such a war with a full consensus from a majority of Vietnamese citizens. In terms of Vietnam’s Covid-19 response, it is quite critical of social distancing and surveillance for Metaphors, Scientific journalism and Patriotism. Secondly, the author analyzes how Vietnam’s reaction that closed the border with other countries, has affected socially and economically, and how these influences are reflected in Vietnam's Covid-19 responses. The author argues that one

reaction of Vietnam to Covid-19, which they put all travelers from South Korea's Daegu under quarantine, has led to an increase in negative responses to Korean and Korean companies in Vietnam, and that the civilian solidarity of Vietnamese companies and the Korean communit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the problem. Furthermore, the blockade at the national level has dragged a national consensus, and it is not a simple logic to sympathize with the authoritarian tendencies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The nation's capacity based on the government's leadership and social trust to prepare for Covid-19 issue is insufficient to be considered just as the authoritarian-leaning idea of 'surveillance' and 'control'.

Key Words: Vietnam's Response to the COVID-19, War Metaphors, Vietnamese government's capacity, authoritarian tendencies of the action,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Vietnam